



“내 가슴엔 ‘광주’가 뒀다”

**광주FC 임선영 100경기 출전
 강등·승격 등 5년 굴곡의 상징
 “기억에 남는 순간은 승격의 날
 광주는 프로선수로 태어난 곳”**

광주 FC의 ‘캡틴’ 임선영에게 광주는 운명이자 고향이다. 광주에게 임선영은 팀의 상징이자 역사이다. 임선영은 지난 3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경기에서 선발 출장하면서 100경기 출장의 위업을 달성했다. 광주 FC가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뎠던 2011시즌부터 강등과 승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돌아온 2015시즌까지... 그가 쌓은 한 경기 한 경기는 광주의 지난 굴곡의 시간을 오롯이 담고 있는 역사다. 그리고 100경기의 역사는 그를 광주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100번째 경기가 끝난 뒤 임선영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묻어났다. 마냥 기뻐만 하기에는 광주의 산 증인이자 캡틴으로서의 역할이 무겁다.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순간과 정든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픈 추억들도 함께 담긴 100경기였기에 여러 생각이 교차한 것이다. 사실 100번째 경기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이날 경기는 원정 10연전을 앞두고 치른 광주에서의 마지막 경기였다. 먼길을 떠나기에 앞서 3경기 연속 무승 부진이 계속됐던 만큼 승리에 대한 염원은 컸다. 다행히 경기가 1-0 광주의 승리로 끝나면서 임선영은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임선영은 “100경기 출장은 생각을 안 했다. 팀이

힘든 분위기였고 팀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만 했다. 팀을 위해 뛰자는 생각이었는데 동료들이 열심히 잘해줬다. 100경기 날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다. 겹경사를 맞았다”고 활짝 웃었다.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100개의 경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역시 ‘승격의 날’이다. 임선영은 “아무래도 승격 경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김)호남이와 함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경기를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잊을 수 없는 경기다”고 말했다. 임선영의 100경기 출장이 더 특별한 것은 광주에서 시작해서 광주에서 이룬 원클럽 100경기라는 것

이다. 서울 출신의 임선영이지만 광주는 축구선수 임선영이 되고자 한 그의 또 다른 고향이다. 임선영은 “100경기 축하 영상에서 나를 광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광주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향 같은 곳이다. 프로 선수로서 내가 태어난 곳이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광주팬들에게 감사하다. 100경기, 5년이라고 하니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다(웃음). 팀의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FIFA 회장 출마 고심”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블라티 전적 사퇴 선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3일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와 관련,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신문로 축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국제축구계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FIFA 회장 선거는 블라티 회장이 물러날 12월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 명예회장의 출마선언 여부는 하반기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블라티의 지원을 받았거나, 블라티 덕에 자리를 차지한 분들은 선거 출마를 자제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프 블라티 FIFA 회장이 부패 의혹으로 사퇴한 데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FIFA 부회장으로 17년간 일했던 나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아 FIFA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블라티 회장이 12월까지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개혁대상이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업무를 해선 안 된다. 자금 결제나 선거관리위원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블라티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제롬 발게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발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블라티와 발게가 선거관리를 한다든지, 개혁을 주도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명예회장은 자신이 FIFA 회장에 도전할 경우 국제축구연맹에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축구단을 오래 (운영)했기 때문에 나와 관련을 떠나 경력을 쌓았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호랑이 마운드를 구원하라



**힘버, 연이은 부진으로 2군행
 ‘절치부심’ 세밀 야구 전력 분석의 시간
 1군 복귀해 선발서 불펜으로 다시 출발선**

‘위기의 남자’ 힘버가 제 2의 스티븐으로 전류에 성공할까?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퍼펙트 사나이’ 힘버와 윤석민의 미국 동료였던 스티븐으로 외국인 투수 콤비를 구성했다. 앞선 경력과 구위로는 힘버가 캠프의 기대주였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올 시즌 힘버가 많이 기대된다. 스티븐은 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조기 교체도 가능할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6월에 접어들어 현재 두 사람의 입지가 달라졌다. 스티븐이 초반 불안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에이스 양현종과 원투펀치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지독한 부진이 이어지면서 2군에 다녀온 힘버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 그래도 힘버에게 반전의 기회는 있다. 스티븐이 좋은 사례다. 스티븐은 왼팔을 내리고 고개를 고정하면서 제구를 조정했다. 안정된 제구로 공격적인

피칭을 하며 ‘땅볼 사나이’가 됐다. 불 날밭이 줄어들면서 투구수를 아끼게 됐고, 병살타로 위기를 넘기면서 이날이 덩달아 늘었다. 코칭스태프의 세밀한 관찰과 관심이 만든 스티븐의 변화. 힘버에게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2군을 다녀왔지만 경질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의 장점을 끌어올리라는 배려였다. 힘버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김기태 감독은 힘버의 부진이 계속되자 “조기 강판이 되고 혼자 덕아웃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못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머리로 복잡하고 힘들 것이다. 나도 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봐서 그 심정을 잘 안다”며 “힘으로만 던지려는 솔로 홀런으로 연결했다. 비거리가 120m. 이로써 이승엽은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400홈런 달성에 필요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힘버가 유난히 믿고 따르는 이대진 투수 코치도 “자신의 문제점이 무언인지 알고 있다. 2군에서 차분하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올 것이다”고 2군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국보다는 세밀한 한국 야구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성실함과 좋은 구위로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힘버지만 캠프 첫 실전 피칭에서 첫 타자의 타구에 팔꿈치를 맞으면서 시즌 준비가 더

더졌다. 설상가상 재활을 끝내고 치른 첫 시범경기에서도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는 등 한국의 세밀한 야구를 접하고 깨질 기회가 적었다. 부상으로 한국 야구를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코칭스태프 입장에서 힘버의 전체적인 전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불펜에서 다시 걸음을 땀 힘버가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터졌다, 이승엽 400호

프로야구 사상 최초 대기록...롯데 구승민 직구 받아쳐



‘국민타자’ 이승엽(39·삼성 라이온즈)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개인통산 400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3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홈경기에서 5-0으로 앞선 3회말 2사에서 롯데 선발 구승민을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흘러보낸 뒤 2구째 직구(140km)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크게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다. 비거리는 120m. 이로써 이승엽은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400홈런 달성에 필요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

대기록이 터지자 포항구장에는 축포가 터졌고,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다. 이승엽은 아내 이승정씨와 자녀, 아버지 이춘광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기록을 수립해 기쁨을 더했다. 공교롭게도 12년 전 이승엽을 ‘아시아 홈런왕’으로 만들어준 롯데가 또 한 번 대기록의 제물이 됐다. 이날 종료 후에는 전광판에 신기록 수립을 축하하는 ‘40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가운데 꽃다발 증정식이 열렸다. 김인 사장과 류중일 감독, 주장 박석민에 이어 원정팀 주장 최준석이 차례로 이승엽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고, 이승

엽은 모자를 벗어 환호에 답했다. 이승엽은 일본 무대에서 뛰었던 2004~2011년에 홈런 159개를 쳤다. 한·일 통산 홈런으로 따지면 이미 500홈런까지 돌파(559개)했다. 국내 프로야구 통산 홈런 2위는 351개를 친 양준혁(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이다. 이날 홈런으로 시즌 10호 홈런을 기록한 이승엽은 일본프로야구에 진출해 8시즌을 뛴 기간을 제외하고 11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1995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단한 이승엽은 데뷔 첫해 13개의 아치를 그리며 거포로서의 잠재력을 드러냈다. 1997년 처음 홈런왕에 오른 뒤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역대 최다인 5번의 홈런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1999년에는 54홈런으로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50홈런 이상을 달성했고, 2003년에는 56홈런을 쏘아 올리며 한 시즌 최다 홈런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